

한미 국제결혼에서 나타나는 의사전달 갈등의 임상적 고찰

—사회사업 치료이론 정립을 중심으로—

— A Clinical Study on Communication Conflict in Korean-American
Marriage : Toward establishing a Social Work Practice Theory—

朴 宗 三

〈崇田大學校 社會事業學科 教授〉

目 次

- | | |
|-----------------|--------------------------|
| I. 서 론 | 2. 문화적 갈등과 의사전달 |
| 1. 문제의 제기 | 3. 의사전달과정의 기본모형과 문화 |
| 2. 논문의 목적 | III. 임상상담에서 나타나는 한미 국제결혼 |
| 3. 논문의 한계성과 중요성 | 의 의사소통 갈등 |
| II. 문헌연구 | IV. 맺는 말 |
| 1. 선행연구의 개평 | |

I. 서 론

1. 문제의 제기

20세기 중반기에 형성된 국제권력의 균형관계 유지를 위한 초강대국 군사의 장기의국 주둔은 필연적으로 국제결혼이라는 사회현상을 야기시켰으며 이에 따르는 국제결혼 가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사회사업계도 전문적 관심을 갖게 되었다. 미국, 소련, 영국, 불란서 등 많은 강대국의 군인(남성)들이 주둔했었거나 현재 주둔하고 있는 약소국가의 여성들 사이에서 생겨난 가정과 혼혈아동들의 사회적 문제는 한국의 문제만이 아닌 전 세계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미국에는 70만명에 가까운 한국 이민자들이 살고 있다. 이는 1962년 우리정부의 “해외이주법”, 1965년 미국의 “케네디이민법”, 1972년의 KAL의 한미간 정기여객선 취항 등의 주요요인으로 인해 1960년 후반기에 이르러 미국이민이 가속화된 결과라 하겠다. 그러나

이와같은 급속한 이민증가의 요인분석에서 주목을 끌지 못하고 있는 요인이 곧 한국동란 이래 미군주둔 기지촌 주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미 국제결혼인 것이다. 미군이 계속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한 현재 추세대로 결혼이 계속된다면 연 4,000쌍이 결혼할 것이라고 미 육군 사회사업가로 일한 이무일 소령은 예측하였으며¹⁾ 1970년대는 3,000쌍 이상의 한미 국제결혼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되었다.²⁾

미군과 한국여성들간의 국제결혼에서 주목하여야 할 사실은 낮게는 80%에서 높게는 90%까지의 이혼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미군계통의 군목, 법관, 사회사업가, 인사처 요원 등에 의하여 추산되고 대사관 직원도 같은 의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³⁾ 그러나 현재까지는 신빙성 있는 공식적 통계보고는 없으며 앞으로도 정확한 이혼율을 파악한다는 과제는 군인 가족이라는 여건상의 제약으로 파악하기 힘들 줄 안다. 제한된 연구방법에 의한 산발적 통계보고가 있기는 하나 많은 신빙성의 문제를 갖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1974년 Seattle 근교에 위치한 미군부대 Fort Lewis에서 이민족간의 결혼한 가족의 이혼율이 80%에 달했다는 연구보고이다.⁴⁾

미군과 한국여성사이에서 성립되는 국제결혼의 이혼율이 높은 원인은 주로 미군주위의 기지촌에서 결합되는 한미결혼이 충동적 행동, 현재의 만족추구, 현실도피, 욕구충족을 위한 상대방의 도구적 사용 등 이외에도 그들의 사회적 배경, 문화적 차이, 언어소통의 제한점 등 결혼의 성립단계부터 치명적인 문제점들을 들 수 있다. 물론 정상적인 국제결혼을 성취하여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는 예도 있지만 대부분의 결혼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사실은 국제결혼의 남편이 될 미군들이 자라온 미국사회의 이혼율이 1970년대에 들어 오면서 1.7 결혼당 1가족이 이혼하여 60%의 이혼율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⁵⁾ 지원병제도에 입대하는 미군들의 사회, 경제 문화적 배경을 감안한다면 한국여성과 결혼하는 주한미군들의 가정생활에서의 문제점이 높은 이혼율을 나타내리라는 가설은 쉽게 설정할 수 있다고 본다.

이와같은 한미국제결혼가족의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적 접근이 미군 사회사업가, 군목, 가족치료자, 임상심리학자 등에 의하여 시도되어 왔으나 언어의 장벽과 문화적 요소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커다란 문제점에 봉착하고 있는 현실이다. 전문적 가족치료자(Family Ther-

1) Lee, Daniel B., "Military Transcultural Marriage: Research Findings," the Paper Presented at the Department of Army Behavioral Science, Conference El Paso, Texas, October 22, 1981.

2) 박종삼, "한미국제결혼에서 문화적 배경의 차이로 인한 의사전달 갈등의 이론적 고찰," 숭실대학교 논문집 제12집, 1982, p.100.

3) 박종삼, Ibid.

4) Herald G. Gateley (Minister to Korean-American Families, Office of the Post Chaplain), "Staff Study of Korean-American Families," Fort Sill, Oklahoma, 1977.

5) 참조 Monthly Vital Statistics Report 24, No.12 (4 March, 1976)

apist)들이 국제결혼 당사자들의 가치관, 의식구조, 사고방식, 행동양식, 사물의 판단양식 등 문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이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노력은 불가능한 것이다. 특별히 결혼당사자들간의 의사교환(Communication)은 단순한 기계적 언어통달에 의해서만은 불가능하며, 문화와 언어라는 체계적 (System) 접근이 절대로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사회사업계에 제기된 한미 국제결혼 가정을 위한 가족치료 이론의 정립을 위하여 문화적 배경의 차이로 인한 의사전달 갈등의 종합적 이론고찰을 하지 않을 수 없다.

2. 논문의 목적

본 논문은 상기한 종합적 이론고찰의 부분적 과제로써 한미국제결혼에서 나타나는 의사교환의 문제점들을 임상적 측면에서 고찰함으로써 한국사회사업가들로 하여금 이미 터득한 가족치료이론과 기술에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이론적 Clue를 제시하는데 있다.

3. 논문의 한계성과 중요성

본 논제는 문화, 성격, 결혼, 의사태라는 복잡한 구조개념(Construct)으로 구성된 것으로 사회학, 심리학, 정신분석학, 인류학, Communication Theory 등 다면적 접근이 동시에 시도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초단계의 조사로써 철저한 과학적 검토를 위한 연구계획보다는 연구자가 지난 7년간 임상을 통한 관찰과 경험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립시키는 것으로, 제시되는 자료들의 연결이 어느정도 산만하게 되어졌다. 또한 한미국제결혼이 미국내에서 생기는 문제는 직접적인 관찰보다는 한국에 재 주둔한 가족과, 연구논문, 그리고 이 문제를 미국에서 취급한 사회사업가, 군목 등 전문요원의 간접적 보고에 의존한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한국문화와 미국문화가 의사교환에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가에 대한 assimilation, acculturation, amalgamation, integration, Synthesis, Conflict, adjustment 등의 기전(Mechanism)에 대한 연구가 취급되지 못하고 있는 한계성이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그 성격상 임상적 학구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한국의 문화가 다른 문화적 상황에 노출된 한국인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이론적 연구기반을 제시해 준다. 둘째, 현재 사회문제로 대두된 한미 국제결혼의 갈등, 이혼문제 등 이와 관련된 전문적 치료이론과 임상모델을 여러 분야의 전문치료자에게 제시해 준다. 셋째, 앞으로 한국이민과 미국인들 사이에 성행될 한미 국제결혼 가정문제의 사회사업적 치료이론과 기술을 개발하는데 공헌할 수 있다.

II. 문헌연구

1. 선행연구의 개평

미국군인과 한국여성들간의 국제결혼에 관한 연구논문은 국내외를 통해서 매우 희박한 실정이다. 이것은 본 사회문제의 역사가 짧으며, 사회적 관심이 약하며, 또한 연구과제 자체가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인가족으로 한국과 광대한 미국영토와 세계 도처에 산재한 미군기지들 사이에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있는 연구를 진행시키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의 결과라고 본다. 이 분야에 관련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학자들로 김복림 교수, 이부일 교수 등을 대표로 들 수 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교수로 박종삼 박사, Stephen K. Kim 교수 Arthur Kinsler 박사 등이 있다. 이외 David and Vera Mace⁶⁾ Herming Lynn Galbraith and Robert S. Bernard (U.S. Army Chaplains), Harold G. Gateley (Chaplain), Bascom W. Ratliff 등 대부분의 연구가 주한 미군 산하의 Chaplains Corps와 Community Lawyers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연구방법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

이중 가장 의미있는 논문 "A Socio-Cultural, Interpersonal Survey, Korean Nationals and American Personnel-1978"⁶⁾이 Galbraith, Bernard 2명의 군목에 의하여 발표되었다. 「왜 한미국제결혼이 필요한가?」, 「국제결혼 당사자가 서로 적응할 수 있는가?」, 「국제결혼의 위험은 어디에 있는가?」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의정부 지역의 미군기지인 Camp Casey, Camp Sanley, Camp Aouze를 중심으로 227쌍을 상대하여 연구조사하였다. 특별히 FIRO-B(Fundamental Interpersonal Relations Orientation)⁷⁾를 사용하여 "Inclusion Need", "Contral Need"와 "Affection Need"의 차원에서 대인관계요구에 근거한 대인관계 행동양상에 관한 이론을 한미결혼관계에 적응하여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Dating, 성(Sex), 재정, 가족관계 문화적차이, 미래계획, 결혼관계의 역할수행 등에서 미국 남편과 한국부인들 사이에 뚜렷한 차이점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대부분 문화적 배경에 입각한 의식구조의 차이점에서 기인됨을 알 수 있다.

6) Chaplain (CPT) H.L. Galbraith and Chaplain (CPT) R.S. Bernard, Korean-American Marriage Applicants, A Socio-Cultural, Interpersonal Survey, Korean Nationals and American Service Personnel-1978, A Survey Conducted in the Second Infantry Division, U.S. Army in Korea, April-June, 1978.

7) W.C. Schutz, FIRO: A three Dimensional Theory of Interpersonal Behavior, N.Y.: Rinehart & Co. 1958.

일반적인 문헌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면 한미 국제결혼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높은 이혼율을 나타내고 있음이 분명하다. 제일 큰 문제는 쌍방간에 언어소통이 충분히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어느정도 소통되는 언어도 문화적 배경의 차이로 태도, 행동, 사고, 판단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의사교환의 갈등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의사소통이 야말로 가정생활을 가능케하고 의미있게 해주는 열쇠인데, 한미국제가정에서 언어장벽, 문화갈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체계적 연구결과가 한편도 보고되지 않고 있다.

2. 문화적 갈등과 의사전달

“Culture and Communication”에 관한 연구는 여러 전문분야(Professional fields)에서 진행되었는데 특별히 언어학, 인류학, 종교학, 사회심리학, 외교학, 임상심리학 등에서 여러 차원으로 연구되었다. 이와같은 현상은 20세기에 들어서며 남북아메리카를 중심으로 한 세계적 이민현상과, 각국의 외교의 다변화, 및 서구기독교의 외국선교에 대한 근대적 방법의 개발 등 이민족간의 접촉은 물론 동일한 지역에 거주하며 이민족간의 결혼이 진행됨에 따라서 나타나는 의사소통과 문화의 갈등해결을 위한 노력에 기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영국 Bristol대학교의 심리학과에서 “Language, Ethnicity, and Intergroup Relations(1977)”⁸⁾라는 저서를 통하여 이민족간의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교육이나 대인관계에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여러가지 임상실험보고를 한 것은 문화와 의사소통을 취급한 좋은 예라고 볼 수 있다. 국제관계의 악화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James Downs는 “문화간의 의사소통이라는 반석위에서 세계중진의 노력이 견주되고 있다”⁹⁾라고 함으로써 “Culture and Communication”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제결혼 가족치료의 이론과 기술을 사회사업적 입장에서 정립하고 발전시키는 과제는 결단코 쉬운 일은 아니다. 사회심리적 접근(Psychosocial Approach)을 위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이해는 치료이론을 설립하는(Theory Building) 기초작업에 많은 개념들(Concepts)과 구조들(Constructs)을 응용과학의 입장에서 취사선택한 후 철저한 이론적, 임상적 실험을 거치지 않으면 안되는 난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작업은 사회사업학의 인접학문인 정신의학이나 임상심리학에서 이미 많은 성과를 성취하고 있으며, 사회사업이론을 정립하기 위한 방법론(Methodology)도 인접학문의 방법을 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8) H. Giles (ed.), *Language, Ethnicity and Intergroup Relations*, London: Academic Press, 1977.

9) James F. Downs, *Cultures in Crisis*, Beverly Hills, Calif.: Glencoe, 1971.

T.M. Abel과 R. Mettraux의 저서 "Culture and Psychotherapy"¹⁰⁾나 하와이 대학, Department of Psychiatry에서 출간된 "Adjustment in Intercultural Marriage"와 같은 연구 문헌은 사회사업계에서 국제결혼 가족치료이론을 정립시키는 좋은 모델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사회사업은 그나름대로의 가치와 목적과 학문적 전제를 이미 지니고 있으므로 제기된 과제수행을 위한 Micro-approach와 Macro-approach를 독자적으로 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거시적인 접근방법으로 "Culture, Behavior, and Personality"¹²⁾의 저자 R.A. LeVine이 전개한 사회심리적 적용의 비교연구이론은 사회사업이론정립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예라고 본다. K.K. Sereno와 C.D. Mortensen등¹³⁾ 기초적인 Communication theories를 보다 체계적인 차원에서 미시적 접근을 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사실 E. J. Thomas의 "Marital Communication and Decision Making"¹⁴⁾은 사회사업계가 인접학문의 이론을 충분히 활용하여 정립한 가족치료이론의 한 예이지만 Intercultural내지 Cross-cultural한 변수는 취급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결혼 가족치료는 임상적차원에서 현상학적(phenomenological)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분야의 연구에 실마리를 우리에게 던져줄 분야는 선교학(Missiology)에서 연구하고 있는 "기독교와 문화"라고 생각한다. 근래에 이르러 Nida의 "Custom and Culture" (1954)¹⁵⁾; Smalley (ed.) "Reading in Missionary Anthropology" (1963);¹⁶⁾ Luzbetak의 "The Church and Cultures" (1963);¹⁷⁾ 그리고 Mayers의 "Christianity Confronts Culture" (1974)¹⁸⁾등의 저서는 비록 서구사회가 아프리카나 아세아등 외국에 선교를 하는 종교적인 내용을 취급하고 있으나 그들이 다른 문화간의 갈등과 의사소통(Communication)에 대한 연구방법은 사회사업이론 정립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확신한다. 특별히 Charles H. Kraft의 "Christianity in culture" (1979)¹⁹⁾과 David J. Hesselgrave의 "Communicating

10) Theodora M. Abel & Rhoda Mettraux, *Culture and Psychotherapy*, New Haven, Conn.: College and University Press, 1974.

11) W.S. Tseng, et al., (ed.), *Adjustment in Intercultural Marriage*, Honolulu: University Press, 1977.

12) Robert A. LeVine, *Culture, Behavior, and Personality*, Chicago: Aldine Publishing Company, 1973.

13) K.K. Sereno and C.D. Mortensen, *Foundation of Communication Theory*, New York: Harper & Row, 1970.

14) Edwin J. Thomas, *Marital Communication and Decision Making*, New York: Free Press, 1977.

15) Eugene A. Nida, *Customs and Cultures*, New York: Harper & Row, 1954.

16) William A. Smalley, (ed.) *Reading in Missionary Anthropology*, South Pasadena, Calif.: William Carey Library, 1967.

17) Louis V. Luzbetak, *The Church and Culture*, Techny, Ill.: Divine Word Publications, 1963.

18) Marvin K. Mayers, *Christianity Confronts Culture*, Grand Rapids: Zondervan, 1974.

19) Charles H. Kraft, *Christianity in Culture*, Maryknoll, New York: Orbis Books, 19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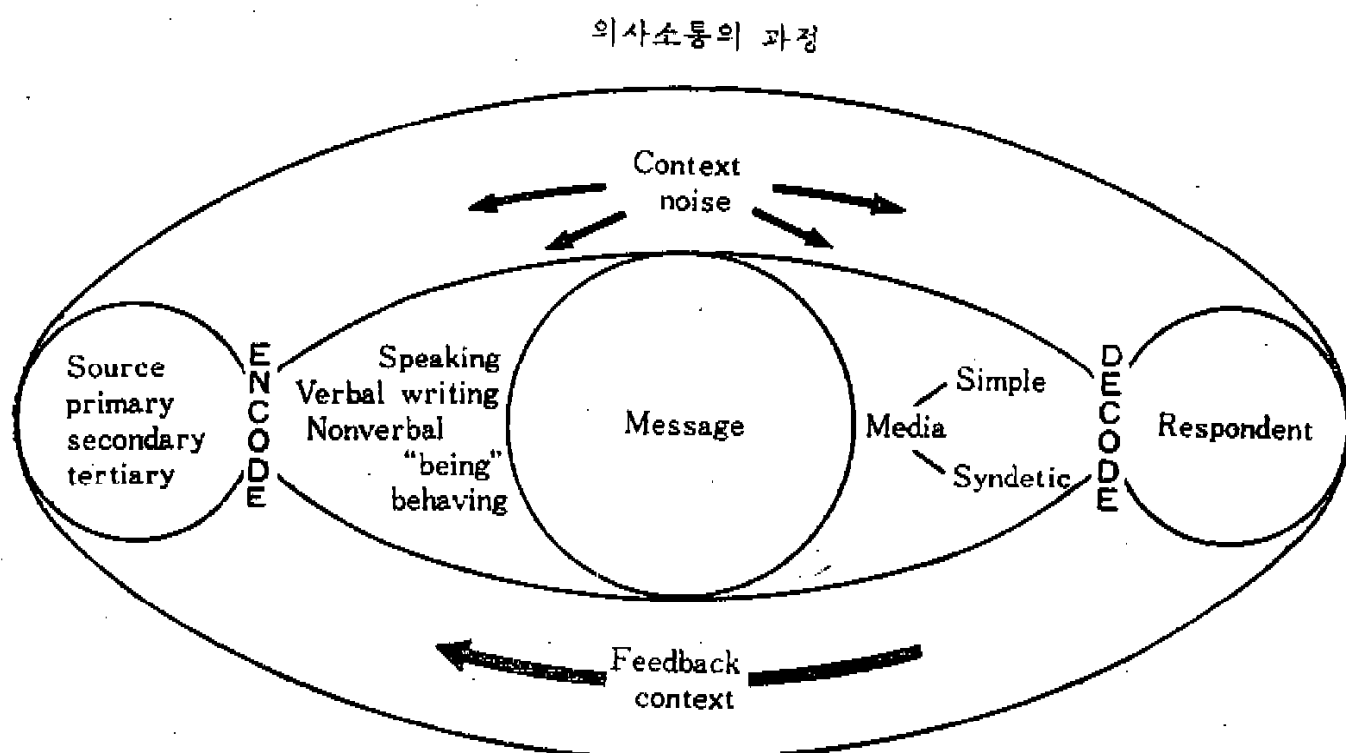
Christ Cross-Culturally”(1978)²⁰⁾ 등은 Communication Theories 등을 상이한 문화의 접촉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실용적인 ideas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

3. 의사전달과정의 기본모형과 문화

Aristotle은 일찌기 의사소통을 “the Speaker”, “the Speech”, “the Audience”의 세 요소의 개념으로 정의하였는데 이것은 Communication Theories를 발전시키는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²¹⁾ 근대의 의사소통과정은 전자공학의 영향으로 복잡성을 띄우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다섯개의 요소 (1) 원천(a Source), (2) 송신자(a transmitter), (3) 신호(a Signal), (4) 수신자(a receiver), 그리고 (5) 도착(a destination)을 포함하고 있다.²²⁾

이 기본 의사소통 과정(Communication Process)을 D.J. Hesselgrau²³⁾의 도표에 따라서 표시하면 (도해 1)과 같다.

미군과 한국여성간에 성립된 국제결혼의 의사소통갈등이 이 다섯가지 과정에서 어떠한



(도해 1.)

20) David J. Hesselgrave, *Communicating Christ Cross-Culturally*, Grand Rapids, Zondervan, 1979.

21) Aristotle's Rhetoric을 참조.

22) Claude E. Shannon and Warren Weaver, *The Mathematical Theory of Communication*,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49.

23) D.J. Hesselgrave Ibid., p. 37.

형태로 나타나는가를 검토 연구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인 준거틀 (Frame of Reference)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1) 일차, 이차, 삼차적 근원(Primary, Secondary, and Tertiary Sources).

Message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의 질문이다. 자기의 말을 직접하고 있는가 또는 타인의 말을 제 3자의 입장에서 말하는가의 문제는 부부간의 의사거래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것은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성격에서 큰 차이를 보여 줄 수 있다. 이 "Source"는 Aristotle의 "Speaker"와 유사한 개념이다.

2) Encoding(약호기록)과 Decoding(약호풀이)의 과정

"Encoding"이란 수신자의 편의를 위하여 어떤 약호화된 제도(Coded System)에 전하고자 하는 Message를 담은 것이다. Encoding은 문화에 따라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동시에 "Decoding"은 약호에 포함된 Message의 내용을 해석하여 발신자의 의도를 찾아내는 과제이다. 단어 "Communication"은 라틴어외에 "Communis"(Common)에서 유래한 것으로 수신자와 발신자의 공통의 Code를 지닐때 의사전달이 된다는 것이다. 인간행동이나 부부간의 결혼생활은 근본적으로 "Encoding"과 "Decoding"에 의존하며, 이것은 포식(Sign)이나 상징(Symbol)등의 약호에 의존함으로써 문화의 갈등적 상황하에서의 의사교환의 문제점은 얼마나 심각할 것인가의 가설은 이해하기가 별로 어렵지 않다.

3) 언어적 비언어적 약호(Verbal and Nonverbal Code).

진정한 부부간의 의사교환이 성립될려고 한다면 한쪽에서 Encoding 할때의 언어적, 비언어적 약호가 상대방에게 이해되어져야 한다. 언어적 약호는 회화적 약호와 기록적 약호로 구분되는데 한미결혼가정에서 사용되는 영어와 한국어는 그 어원이 같지 않아서 상대방의 언어를 터득하기란 매우 힘든 것이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국제결혼가족에서는 비언어적 약호에 의존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제스처, 예의범절, 시간과 공간과 색상의 사용 등의 약호를 사용하여 의사교환을 하여야 한다. 동서문화권의 갈등은 한미가정의 비언어적 약호가 도움대신 오히려 의사소통을 방해할 때가 많다.

4) 의사소통 수단(Communication Media)

"Medium"(수단)이란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약호로 된 Message를 수신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말한다. "Simple media"(단순 수단)이란 대화, 강연, 제스처, 기록된 자서전 등의 수단을 말하고 "Syndetic Media"(접속적 수단)는 영화, 라디오, T.V. 연극, 서적 등 많은 청증을 위해 "단순 수단"을 결합하는 복합적 의사교환기술을 필요로 한다. 문화적인 차원에서 상대방의 Syndetic Media선택에 대한 이해는 절단코 쉽지 않다.

5) 되돌림(Feedback).

진정한 의미에서의 의사교환은 일방통로가 아닌 “이방”(Two Ways)이 되어야 한다. 대인관계 특별히 부부간의 의사교환에서 자기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고 듣고, 반응하는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Feedback System도 문화의 영향을 받아 여러가지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임상에서 관찰할 수 있다.

6) 잡음(Noise)

의사거래과정은 본래 계획한 의도대로 진행되는것 만은 아니다. 거리의 잡음, 방구조, 특이한 행동 등 의사교환을 방해하는 요소는 많다. 이와같은 잡음은 가능한 한 줄여야 한다. 사실 한미 국제결혼 가정에서 의사교환에 부정적으로 투입되는 잡음은 너무나 많다. 어떤 문화속의 한 긍정적상징이 의사교환에 다른 문화에 의하여 부정적 상징으로 인식될 수 있다.

7) 의사교환과 상황(Communication and Context)

의사교환에서의 전후관계를 고려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어떤 Message의 의미는 전후상황과 긴밀히 연관되었으므로 시간과 공간과 어떤 경우에 의사교환이 진행되었는지 여러가지 상황적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에도 한국부인과 미국군인 사이에는 문화배경의 차이로 상황판단에서 여러가지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어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Ⅲ. 임상상담에서 나타나는 한미 국제결혼의 의사소통 갈등

전문 한미결혼 상담자들을 상대로 상담분야 설정을 위하여 1982년 3월, 미 8군 군종휴양관에서 “Paired Comparison Analysis”방법을 사용하여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6가지 순위 즉 1) 애정과 가정, 2) 의사교환, 3) 문화적 배경, 4) 상호적응, 5) 상호요구와 기대, 그리고 6) 재정관리로 나타났다. 상기한 상담분야를 효율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공통과제는 역시 문화적 배경의 차이로 나타나는 의사소통의 갈등을 해결할 이론과 기술을 사회사업가로서 정립하는 일이라고 본다.

이미 소개한 의사전달의 기본모형(Ⅱ장 3.)의 준거하에 지난 7년동안 임상에서 나타난 문제를 대표적인 것 만을 소개하고 분석함으로써 국제가정의 치료이론 정립의 가능성과 방향을 제시하려고 한다.

1) 대인관계에서의 문화적 갈등

초기의 Freud학파의 정신분석학적 치료자들은 모든 개인이 문화적 배경을 초월한 본능에서 발생하는 공통된 요구를 갖고 있다고 봄으로써 Communication Process에서의 Source의 공통성을 주장하고 있다. 즉 인간의 성적(libidinal)공격적 충동이 특정의 문화적 특징을 나타내지 않으므로 정신역동기능만을 취급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Freud(1938) 자신도

Superego가 얼마나 강하게 부모의 영향을 받고 형성되는가를 수용함으로써 문화의 영향을 인정하였다.²⁴⁾ 정신분석학자들 중에는 자아(Ego)의 기능이 문화적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사실 문화란 사회화 과정(Socialization Process)과 그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문화가 다른 환경에서 자란 미군과 한국여성간에는 사물을 관찰하는 측면, 경험을 개념화하는 작업, 자신의 욕구표현, 자신과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 관촬할 만한 차이점을 결혼 상담 중 관촬할 수 있다. 실제로 Jung²⁵⁾의 학설에 따라서 관촬하면 미군들은 지나치게 지성적인 면이 분화되어 한국인들이 지니고있는 무의식의 영역과의 관계성을 상실해 버린 상태가 되어 있다. 이로써 Communication의 근원자체부터 문제성을 지니고 있음을 본다.

또한 사회학적 측면에서 고찰하더라도 Gemeinschaft적 문화배경을 지닌 한국여성과 Gesellschaft적 문화배경을 지닌 미국남성 사이의 의사거래란 갈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미국남편과 한국부인의 문화적 갈등은 역할과 원형변수(Roles and Pattern Variables)에서 구분하는 1) Universalism-Particularism, 2) Instrumentalism-Expressiveness, 3) Specificity Diffuseness, 4) Ascription-Achievement,²⁶⁾ 등 대조되는 차원에서 일어남을 볼 수 있다. 이것은 Communication Process에서 Encoding과 Decoding을 하는 과정에서 큰 오해와 곡해를 초래시키는 요소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Specificity-Diffuseness차원에서 볼때 미군남편들은 구체적으로 누가 무엇을 할 것인가의 역할분담과 책임소재에 대한 Specificity를 주장하는 반면 한국부인은 그와같은 기계적이고 타산적인 대인관계는 사업이나 군인생활에서나 적용될 원칙이지 가정생활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Diffuseness를 주장하고 있다. 결국 한국사람들간의 결혼은 쌍방이 다 Diffuseness의 준거틀에서 Encoding과 Decoding을 함으로 Message의 전달이 Source에서 Respondent로 정확히 전달되는데 이것이 국제결혼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대인관계에서의 가장 큰 문화적 갈등의 요소는 역시 한국인의 “체면문화”와 “기분문화”와 미국인의 “가치문화”사이에 있다고 본다. 한국부인들의 대부분이 “체면”과 “기분”의 사이에서 결혼생활을 이끌어 나가고 있어 객관적인 타당성과 합리성에 입각한 생활양식에 젖은 미군남편들에게는 한국부인들의 Message에 대한 Decoding을 하는데 곤란을 겪고 있다. 이 결과 옹지않은 feedback을 받은 한국부인은 불만족을 표하게 된다. 분명 “체면”은 Ego가 Superego의 종(從) 노릇을 하는 경향인듯 하며 “기분”은 Ego가 id의 지배를 받게 되는 현상인듯하나 “가치문화”는 Superego와 id의 재료를 ego가 소화한 기능의 소산이라고 볼 때

24) S. Freud. The Basic Writings of Sigmund Freud in A.A. Brill (Tr. and ed.) New York: The modern Library, 1938.

25) 올란디 야코비, 이배동역, 칼 융의 心理學, 서울:성문각, 1978, p.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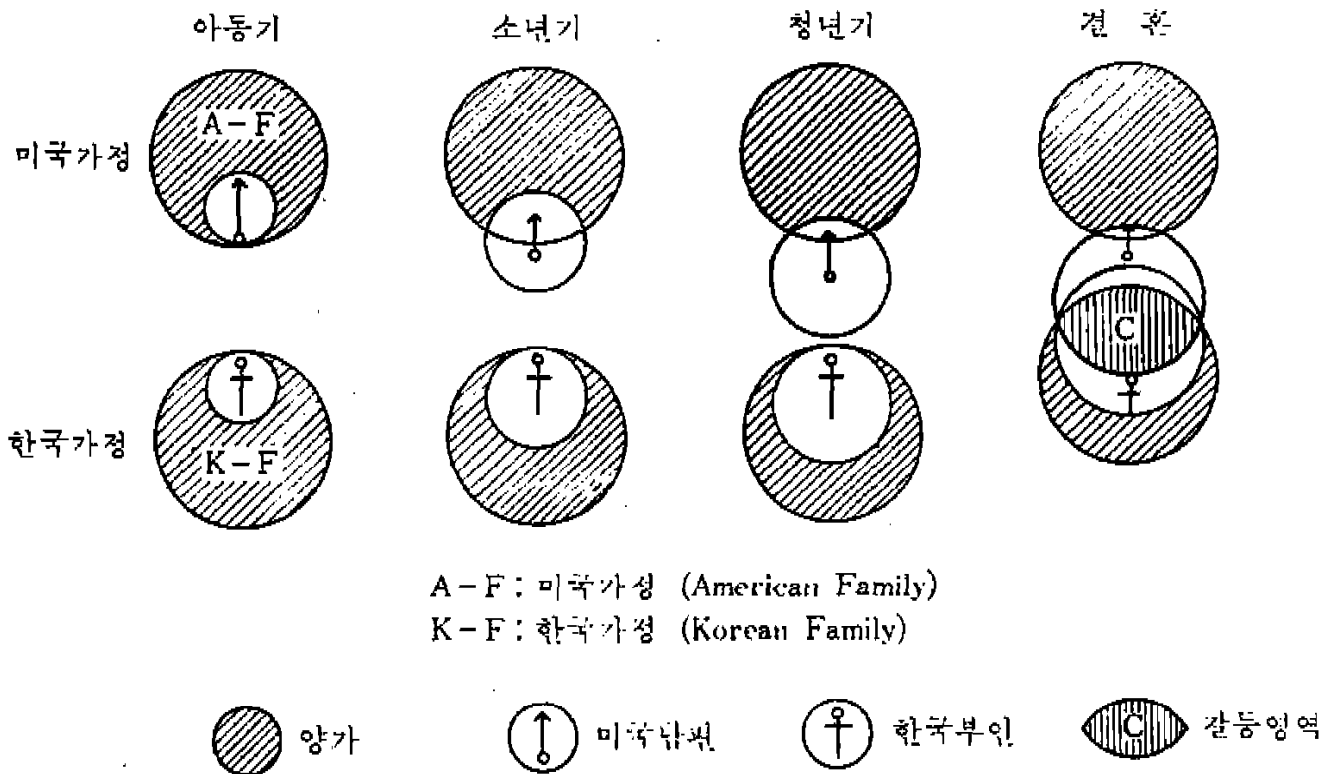
26) 崔在錫, 韓國人의 社會的 性格, 開文社, 1965, pp. 27~46.

한미국제결혼의 의사소통이 얼마나 취약점을 지니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체면은 다분히 타율적인 행동을 말한다. 이것이 한미결혼 부부간에 큰 마찰의 요인으로 나타나는 전형적인 임상적 현상은 한국부인들이 남편의 말보다 지나치게 친구나 동네아주머니 등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다. 이것은 의사전달 이론에서 Source에 관련지어 Primary, Secondary, Tertiary의 근원적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Noise(잡음)가 부부간의 의사교환에 영향을 미쳐 갈등을 초래시키고 있다. 또한 Universalism-Diffuseness-Ascription 등의 Role을 택하여 체면을 의식하여야 하는 한국부인들에게는 언어의 불통과 함께 많은 Sign과 Symbol을 사용함으로써 Syndetic Media를 부정확하게 사용하여 미국남편들을 혼란시킨다. 똑같은 현상이 미국남편을 통하여 한국부인들도 경험하게 된다. 의사교환을 위하여 미군 남편들이 Simple Media를 쓸때는 기계적인 의사교환은 초보적인 차원에서 성취되었으나, 한국부인들은 자기의 요구를 만족시키는데는 아무런 의미도 찾지 못해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2) 가족관계에서의 문화적 갈등

한국사회에서 유교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한국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는 가정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의식구조를 지니고 있다.²⁷⁾ 동양인의 의식구조 내지 Identity는 개체적

한미국제결혼 당사자들의 성장과
결혼에서 가족과의 관계



(도해 2)

인 Identity라기 보다는 오히려 Collective Identity내지 Family Identity 라고 볼 수 있다²⁷⁾ 그러므로 동양에서의 결혼은 두가족에 종속된 새로운 가정을 형성하는 반면, 미국사회에서는 가족에서 독립한 개인들이 사회의 명목에 입각하여 독립된 가족단위를 형성하고 자율적인 가족생활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같은 사회현상을 연구자가 이미 발표한 도해를 다시 소개하면(도해 2)와 같다.

한국부인들의 가족과의 결탁은 미군과 결혼한 후에도 남편 말보다 자기 모친말을 더 듣고 결혼 사생활에 한국부인들은 자기 가족성원을 참여 시키려고 하며, 자기 가족들에게 가능한 많은 경제원조를 하려고 남편까지 속일 때가 있다고 미국 남편들은 불평을 토로하고 있다. 효의 사상에 입각해 부모님과 자기 가족성원들과의 대인관계는 질적인 면에서 남편과의 인간관계보다 강할 때가 있다고 미군남편들은 불평한다. 이것은 문화적 배경에서 Source 와 Respondent간에 현격한 차이에 기인한 오해나 곡해이며 Communication 과정중에서 Encoding이나 Decoding이 공통된 Code를 갖지 못하는데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미군과 결혼하는 대부분의 한국여성은 가출하여 창녀가 된 여성들이 많으며, 미군과 동거하거나 기지촌의 클럽에서 일을 하다가 성급히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죄책감을 갖고 살면서 뭇사람의 질책을 받을 수 없는 가정과의 화해를 위해 재정적인 보상, 정식결혼, 자녀출산 등 유교적 가치관에 근거한 방법으로 부모님에게 접근하게 된다. 이와같은 한국부인과 그 가족간의 무언의 의사교환은 한국적인 "Context"를 알지 못하고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게 된다. 이리하여 미군남편은 자기부인의 내면세계에서 소외된 사실을 느끼며 결혼생활에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3) 재정관리와 문화적 갈등

한미 국제결혼에서 재정관리를 중심으로 충돌이 생기는 이유는 돈이 주는 의미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첫째 그들이 주로 만나게 되는 동기가 기지촌에서 한국여성은 서비스의 댓가로 돈을 받는 편이고 미군은 돈으로 서비스를 사는 편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또한 풍요한 미국 사회의 배경과 가난했던 한국 사회의 배경에서 자란, 미군과 한국여성들에게 돈이 주는 Message는 전혀 다르다. 둘째 Maslow의 Hierarchy of Needs²⁸⁾의 학설에 근거하여 볼 때 한국여성들은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와 안전에 대한 욕구가 강력히 나타나는 반면 미국남성들은 사랑, 존경, 자아실현 측면에서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임상에서 볼 수 있다. 이 결과 미군남편들의 수입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결정과정에서 (도해 3)에서 보듯 현

27) Ibid.

28) Theodore M. Abel & Rhoda Métraux, op. cit. pp. 33~71.

29) C.S. Hall & G. Lindzey, *Theories of Personality*, New York: John Wiley & Sons: 1978, pp. 267~275.

들의 사용도에 대한 견해 갈등

	한국부인	미국남편
현재	+	++++
미래	+++++	++

(도해 3)

재를 즐기기를 원하는 남편과 미래를 위한 저축을 강력히 주장하는 한국부인과 갈등이 생기게 된다.

또한 유교적 전통에서 부모를 공양하는 일과 가문(집)의 재산을 늘리는 일은 모든 자식들의 최대의 의무이며, 부부간의 관계보다도 부모와의 관계를 중요히 생각하는 유교의 전통하에서 자식들이 소유한 재산은 곧 부도의 재산이 될 수도 있다는 한국인의 의식구조를 미군남편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Communication Process 는 이미 제시한 다섯단계에서 모두 문제성을 지니고 있음을 분석하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IV. 맺는 말

지금까지 지난 1982년도 가을 사회사업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간추리어 기록하였다. 그러므로 본 논문의 일관성이나 연결성이 결여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특별히 임상상담에서 나타난 의사소통갈등에서 중요한 영역 곧 “언어소통의 장애와 문화적 갈등”, “상호갈등 해소와 문화적 양상”을 지면 관계상 소개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 제기된 한미 국제결혼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며 사회사업계는 이것이 우리에게 부과된 전문적 과제라는 사회적 사명의식을 갖고 하루속히 우리의 이론을 정립하고 치료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줄 믿는다.

특별히 Theory Building을 위해서 몇개의 중요한 Frame of Reference를 설정하고 접근할 수 있으며 이 논문에 소개된 Communication Theory 는 이 접근의 한 시도라고 보아야 한다.